



“새 기업 역할로 사회적 신뢰 제고할 것”

‘신기업가정신’ 동참 1년... 부영그룹, 사회공헌 앞장

부영그룹은 15일 “대한상의가 지난해 5월 발족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에 참여, 지난 1년 사회공헌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신(新)기업가정신’은 ▷지속적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고객과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윤리적 가치’ 제고 ▷조직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청정한 미래와 더 좋은 삶을 위한 ‘친환경 경영’의 실천 위한 친환경 경영 ▷일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 5대 실천명제를 골자로 한다.

이 협의회에는 부영그룹을 포함한 기업 72곳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4곳 등 총 76곳이 참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신기업가정신협의회



(ERT)에서 주최하는 공동챌린지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제로 웨이스트 데이’를 지정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 사업과 환경 연구 지원을 위해 환경재단에 3억원을 기탁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또한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향한 ‘상생 경영’을 위해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하는 납품대금연동제에도 동참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교육시설 신축 기증과 창신대 재정기여자 참여, 재난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신(新)기업가정신’ 1년을 맞아 기업의 역할을 되새겨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김경학 의장 ‘대한민국 평판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2023 대한민국 평판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평판대상은 사)한국크리에이티브진흥협회와 진코코리아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한국시민기자협회 등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관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정목표 아래 지역과 정당을 넘어 공존하고 합심하는 지방의회 의정운영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장 등 환경면 마늘 수확 지원

강병삼 제주시장은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15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환경면 소재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제주시 공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자율적으로 마늘 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마늘 주 생산지인 환경면, 조천읍, 구좌읍 지역 등에서 일손 돕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4·3희생자유족청년회 큰넓게 정비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고경호)는 지난 14일 청년회원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4·3 유적지 큰넓게, 현 묘 터 표지석 주변 환경정비 및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에 송형관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획분야 상임이사에 송형관(사진·59) 전 CBS 제주방송 보도제작국장이 15일 임명됐다.

신임 송형관 상임이사는 제주신문과 CBS 기자, CBS제주방송 선임기자 및 보도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송형관 신임 이사가 25년간 언론기관에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 취재 경험을 토대로 공사의 현안 업무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은 물론, 공사 사업의 대외 홍보 등에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형관 신임 이사의 임기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이다.



초·중·고 찾아가는 우주 특강 진행

제주도교육청은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도청과 공동 주최하고 한화시스템에서 후원하는 ‘찾아가는 우주 특강’을 15일 오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까지 12개 학교에서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60여 개 학교에서 ‘찾아가는 우주 특강’을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따라 7·8월에도 이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옥·문순생 부부 재일제주인 성금

제주공항현대서비스 김봉옥·문순생 대표 부부는 최근 제주시 용담2동 소재의 제주공항현대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 성금을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제주농협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농협제주본부(본부장 윤재춘)는 지난 12일 서귀포농협 유통사업본부에서 위정근 국회의원(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진행, 한국농협 김치 소포장 6중 세트(4.4kg) 300세트를 도내 복지시설 31곳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협김치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김치로든 온(溫)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농협김치는 2022년 전국 8개 농협 김치공장을 하



나의 법인으로 통합해 출범한 농협의 통합김치브랜드로, 해썬(HACCP) 인증 공장에서 100%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프리미엄 농협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영주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 영주로타리클럽(회장 홍상기)은 지난 1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와 ‘사랑의 집짓기 4호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회장 황금신),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경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사랑의집 4호를 위해 영주로타리클럽 홍상기 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후원해 프로젝트 사업비 총 1000만원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제주시에 위치한 노



후 주택은 따뜻한 ‘사랑의 집’으로 바뀌었고 5식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기기'이며 '사용자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자선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제주시청
와이덱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CGV